

## 한국기업의 국제이전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김용규

안양대학교 무역유통학과 조교수  
(ygkim@avcc.anyang.ac.kr)

본 연구는 한국 기업이 현지 자회사와 국제이전거래시 이전거래 가격 방법을 채택하는 요인을 알아보는 데 있다. 국제이전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시가기준 이전가격 결정 방법과 비시가기준 이전가격 결정 방법으로 대별하고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국제이전가격 결정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국제기업의 내외부 환경 요소를 들었다.

이러한 환경 요인으로는 현지 자회사국의 법률 및 규제 요인, 세무적 요인, 정치 사회적 요인, 외부 경제적 요인, 내부 경제적 요인과 아울러 모기업의 규모, 현지 자회사 소재국 등 7개 요인으로 나누었다.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이용한 가설 검증 결과 한국 기업의 국제이전가격 결정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현지 자회사국의 법률 및 규제 요인 과 외부 경제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어 연구 가설이 채택되고 나머지 세무적 요인, 정치 사회적 요인, 내부 경제적 요인, 모기업의 규모, 현지 자회사 소재국 요인은 연구 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현지 자회사국의 법률 및 규제 요인인 상관습, 반덤핑 법규, 반트러스트법, 재무보고 규정 등이 엄격할 수록 국제이전거래 가격 결정 방법으로 시가기준 이전가격 결정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지 자회사국의 외부 경제적 요인인 수입규제, 수입할당제, 외환 및 가격규제, 이익배당의 송금통제와 인플레이션율이 높을수록 시가기준보다 비시가기준 이전가격 결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표본은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71개의 한국 기업을 표본 기업으로 하였다.

### 1. 머리말

국제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성공적인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자회사국의 정치, 사회, 법률 규제, 수출입 규제, 자금 이전 통제 등의 제반 국제기업 환경 요소에 따라 해외시장 진입 전략이 현지국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국제경영 환경 요소 중 국제이전가격 결정 전략의 선택은 현지 자회사의 경영 활동성과를 적절하게 나타내야 하는 동시에, 현지 자회사와 모회사 기업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도모해야 하는 양면성 때문에 다른 의사 결정보다 복잡하고 어려우며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모기업과 현지 자회사간의 이전거래시 국제이전가격의 책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市場基準에 의한 이전가격결정 (market-based transfer pricing)으로 모기업과 현지 자회사간 이전거래시 국제이전가격 결정 기준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시가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투자국과 현지국 기업간의 적절한 영업 성적 평가가 가능하고 투자국과 현지 과세당국과의 조세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는 非市場基準(nonmarket-based transfer pricing)으로 시가 이외의 원가기준법, 협상가격법 등을 이용하여 국제이전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의 선택 요인은 국가간의 법인세율 차이, 현지

논문 접수일 : 98. 2      게재확정일 : 98. 5

\* 본 연구논문은 1997년도 안양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  
본 연구논문은 1998년도 한국국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에 발표된 논문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구논문에 대해 유용한 조언을 해주신 두 명의 익명 심사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자회사의 이익 배당 및 본국 송금에 대한 제한, 수입관세, 가격통제, 정치적 불안정과 같은 기업의 내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비시가기준 이전가격에 대하여는 이전가격의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국의 과세권 방어 측면에서 이전 가격 조작을 강력하게 규제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이전가격의 결정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국제이전가격 전략 선정 방법의 중요성 인식과 연구의 필요성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해외에 진출하여 현지 판매 및 생산 자회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모기업과 현지 자회사간의 국제이전가격 결정 방법 선택 즉, 시장기준 이전가격 결정 방법과 비시장기준 이전가격 결정 방법을 선택하는 기업 내적 요인과 기업 외부 환경 요인이 무엇인지 그 결정 요인을 찾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으로는 2차 자료 분석을 이용한 기존 문헌 연구와 아울러 한국기업의 국제 이전거래 실태 및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편을 이용한 설문 조사와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핵심 응답자와의 직접인터뷰를 통한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세부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문헌 연구로써 국제이전가격의 개념과 목적, 국제이전가격 결정 방법과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내·외적환경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 및 국외의 선행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한다.

둘째는 위의 기존 문헌 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가설과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연구 조사 대상으로 설문조사서를 발송하여 수집한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한국 기업의 기업 내외부 환경 요인이 국제 이전가격결정 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내기 위해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채택된 여러 가지 변수 항목에 대한 要因 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한다. 두 번째 단계로는 이러한 요인 분석을 통하여 결정된 요인 차원들을 연구 모형 변수에 포함시키고, 또한 현지자회사 소재국, 모기업의 규모 등 2개 변수를 모형에 추가하여 프로비트 분석(probit analysis)을 실시하여 국제이전가격 결정 방법의 선택에 유의적인 변수를 찾아낸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국내의 선행 연구가 기업 내외부 환경요인과 이전가격결정 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연구라기 보다는 대부분의 연구가 환경요인의 중요도만을 분석하는 부분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해서 국제이전가격 결정의 중요성에 비해 선행 연구에서는 국제이전가격 결정 방법의 선정 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 즉, 단순히 국제이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의 중요도 이외에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이전가격 결정 방법 즉, 시가기준 이전가격 결정 방법과 비시가기준 이전가격 결정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기업내외부의 환경요인과 국가와 기업 규모에 따라 국제이전 가격결정 방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그리고 국제이전가격 결정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는 주로 한국에 진출

한 외국 투자 기업을 표본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한국 모기업과 현지 자회사간의 이전거래에 관한 이전가격 결정 요인을 찾아봄으로써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하려고 하는 한국의 기존 해외 진출 기업과 잠재적인 해외 진출 기업에게 국제이전가격 결정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는 기업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상이전가격 (negotiated transfer price)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Watson and Baumler (1975)는 성공기업은 협의이전가격을 이용하여 기업 부서간의 갈등을 조정한다고 하였다. Ackelsberg and Yukl (1979)도 협의이전가격은 부서간에 우호적인 관계와 협력을 가져다준다고 하였다.

## II. 문헌연구와 가설설정

### 2.2 실증연구

#### 2.1 이론적 배경

기존의 국제이전가격결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분석해 보면 ① 국제이전가격의 결정 ②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결정행위 ③ 국제이전가격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조사 등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전가격전략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법을 들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경제학적 모형 (economic model)과 계량경영학 모델 (mathematical programming model)과 인간행동 모형 (behavioral model)으로 나눌 수 있다 (조대우 1986). Hirshleifer(1956)의 경제학적 모형에서는 중간재 시장이 경쟁적이면 기업은 이전가격을 시장기준가격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만약 중간재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이전가격은 한계 제조원가 (marginal manufacturing cost)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계량경영학 모델은 중간재 제품의 이전가격이 제품 생산 기회원가와 동일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Abdel-Khalik and Lusk 1974). 경제학 모형과 계량경영학 모델이 기업의 이전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생산효율성, 비용최소화, 이익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인간적인 차원이 무시되는 이론적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간행동모형은 이전가격결정에 인간적인 차원을 결합하였다. 인간행동모형은 이전가격 결정에 있어 원가구조와 시장지배력에 의존하기보다

첫째, 국제이전가격의 결정에 관해 1965년의 다국적기업경영 (Business International Corporation: BIC)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다국적 기업은 개별 공장 원가를 무시하고 이익 가산 제조원가나 가장 효율적인 제조 단위의 제조원가에 일정한 이익률이 가산된 가격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Greene과 Duerr(1970)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 미국 다국적 기업은 원가가산가격이나 협의가격을 기준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둘째,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결정 행위에 관해 Arpan(1972)은 미국에 본사를 두지 않는 다국적기업은 관계 회사간 이전거래에서 시장기준가격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Tang(1979) 등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의 다국적기업은 생산비에 이윤을 포함하는 가격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자와 연구 시기 그리고 연구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른 국

제이전가격 결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제이전가격 결정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환경요인들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Shulman (1969)은 법인세율, 수입관세, 환율변동, 현지법인의 시장정보 등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결정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Lecraw (1985)도 관세, 정부가격규제, 자본이득 송금통제 등을 줄이기 위하여 비시가 기준을 이용하여 국제이전가격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Benvignati (1985)는 다국적기업의 광고비, 이전거래의 크기, 진출국의 수 등은 국제이전가격결정 전략에서 비시가 기준을 사용하도록 하지만 대기업에 있어서는 시가기준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정부 정책과 규제는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선진국에서 보다 개발도상국에서 국제이전가격 결정의 조작을 유도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국제이전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환경요인도 이와 같은 환경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그 종류가 다양하고, 또 때와 장소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요인이 바뀌며, 그 중요도도 변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국제이전가격 결정 방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대한 연구를 해 오고 있으나 연구에 선정된 환경요인의 종류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것은 학자들이 연구하였던 시기와 대상 국가 또는 대상 기업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연구의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1970년대 이전에는 국제이전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은 법인세율 차이와 법인세법 규정차이 등과 같은 세무적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1970년대부터는 법인세 이외의 다른 환경요인도 국제이전가격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여러 선행 연구와

학자들의 실증연구를 통하여 입증되었다. 즉, 국제이전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법인세율 및 법규상의 차이, 관세율 및 법규차이, 환율 변동 등과 같은 환경요인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국제이전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 인플레이션, 자회사의 시장정보, 국유화 또는 몰수위협, 해외자회사의 시장경쟁 요인, 이익배당의 송금제한, 현지국의 수입제한, 기업전체의 이익극대화 및 자회사의 업적 측정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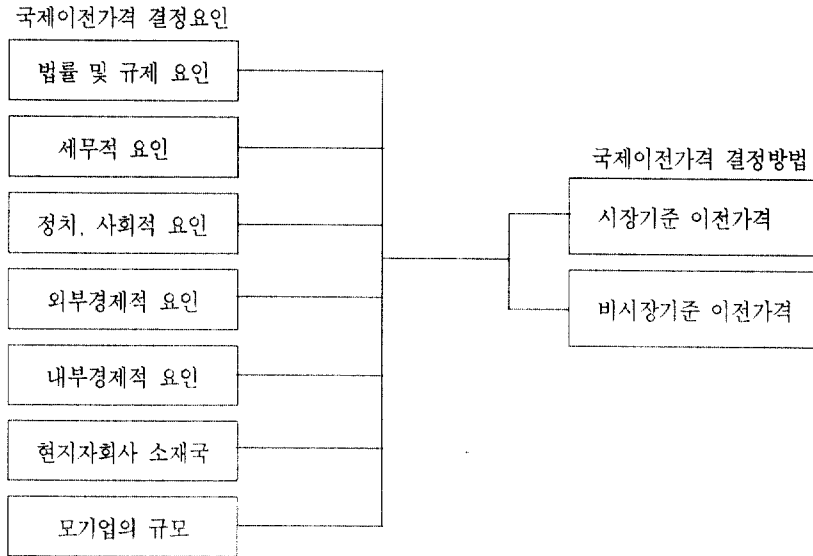
### 2.3 가설 설정

위에서 논의된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목적을 결합한 한국기업의 국제이전거래시 이전가격 결정 방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연구 모델을 설정하면 <그림2-1>과 같다.

다음은 위의 연구 모형에 의한 연구 가설 설정 내용이다.

#### 2.3.1 법률 및 규제 요인

현지국의 법률과 규제 예를 들면 반트러스트법, 반덤핑 법률, 재무보고 의무조항, 상관습 등은 기업간의 이전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국제기업이 해외시장에서의 현지자회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재 이전거래시 이전거래가격을 낮게 책정하게 될 경우 현지국은 국제기업에 대한 가격차별화, 독과점 가격, 불법적인 반덤핑 관행으로 인한 국제이전 가격 조작을 통제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률 및 규제요인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록 시장기준 이전가격을 사용함으로써 상기와 같은 법률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



〈그림 2-1〉 연구 모델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 : 현지자회사국의 법률 및 규제 변수의 중요성이 높을 수록 국제기업은 시장 기준 이전가격을 사용할 것이다.

### 2.3.2 세무적 요인

국제기업이 현지자회사와의 이전거래시 거래가격 결정 요소로 세무적 요인은 본국과 현지국의 법인 세법 및 관세법의 세율과 규정의 차이와 국제이전 거래에 대한 세법 규정의 차이를 의미한다. 즉 기업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기업 (Copithorne 1972)은 상대적으로 법인세율과 관세율이 낮은 현지국과의 이전거래시 현지자회사로 하여금 수출가격은 높게 하고 수입가격은 낮게 함으로써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세율의

차이가 많은 현지자회사와 거래시 국제이전가격의 조작성이 쉬운 비시장기준 이전가격을 사용할 것이다.

〈가설 2〉 : 투자국과 현지자회사국 간의 세율 및 세법규정의 차이가 클 수록 국제기업은 시장에 기초한 이전가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 2.3.3 정치·사회적 요인

국제기업은 현지국의 정치적 요소인 몰수, 국유화, 내전과 쿠데타 같은 정치적 안정성 정도와 사회적 요소인 인종, 계층간의 갈등, 종교적 갈등, 인권침해 정도에 따라 이전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동기가 된다. Shulman(1967)과 Al-Eryani et al (1990)은 불안정한 정치적 환경 및 사회적 환경 하에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

들은 이러한 정치, 사회적 불확실성에 의한 경영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하여 비시장 기준가격에 기초한 이전가격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설 3〉 : 현지자회사국의 정치와 사회적 환경이 불확실할 수록 국제기업은 시장에 기초한 이전가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 2.3.4 외부 경제적 요인

현지국의 경제적 규제에 의해 야기된 시장의 불완전성은 국제기업으로 하여금 비시장 이전거래 가격을 채택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현지국 시장의 불완전성은 외환통제, 가격통제, 수입규제와 인플레이션에 의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외환 통제는 현지자회사가 본국으로의 영업이익을 송금할 때 어려움을 겪게된다. 또한 가격 통제는 이전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율적인 시장메카니즘 기능을 약화시킨다. 또한 현지국의 수입규제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키게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실질이익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경제적 규제들은 비시장기준가격의 사용을 선호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예를 들면 현지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본국의 인플레이션을 보다 높다면 국제기업은 현지자회사의 실질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가격을 높게 책정할 것이다. 따라서 현지국 정부의 경제적 규제가 클 수록 국제기업은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비시장기준가격을 사용하게 된다.

〈가설 4〉 : 외부경제적 규제가 클 수록 국제기업은 시장기준 이전가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 2.3.5 내부 경제적 요인

내부 경제적 요인은 기업특유의 조건과 관련된 변수이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현지자회사의 시장점유율과 현지시장에서의 경쟁위치와 실적 평가를 들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기업간의 이전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내부 경제적 요인의 영향에 대한 부호의 방향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국제기업들은 현지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는 낮은 국제이전가격을 책정하고자 하여 비시장기준가격을 선호하는 반면 다른 국제기업들은 현지자회사의 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시장기준 이전가격결정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현지자회사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이익 증대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는 시장가 보다 낮게 이전가격 책정이 가능한 비시장기준가격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5〉 : 기업의 내부 경제적 조건에 따라 낮은 이전가격이 필요할 수록 국제기업은 시장 기준 이전가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 2.3.6 현지 자회사 소재국 요인

현지 자회사 소재국이 개발도상국인가 선진국인가에 따라 국제이전가격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Brean(1979)과 Plasschaert(1985)의 기존 연구에 의해서도 개발도상국에 위치한 현지 자회사는 선진국에 위치한 현지자회사 보다 이전가격의 조작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개발도상국에

서는 잘 발달된 금융시장이나 제품시장이 없고 이들 국가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경쟁기업체 수가 적어 독과점 시장이 되기 쉽다. 또한 현지자회사의 영업이익을 적게 냄으로써 현지 노동조합의 압력을 회피하거나 현지자회사의 초기 단계의 영업 활동을 도와주기 위하여 국제기업은 비시장기준 이전가격을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 개발도상국에서 영업 활동하고 있는 현지자회사를 많이 소유한 국제기업일 수록 시장기준 이전가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 2.3.7 모회사 규모 요인

대기업의 이전가격 결정 관행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대기업은 사내 교환 거래시 상이한 이전가격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bbins and Stobaugh(1973)의 초기 연구에서도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가격 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표준원가가산(standard markups) 이전가격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Arpan(1972, 1973)은 모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비시장기준 이전가격인 원가지향 가격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초기 연구와는 반대로 최근의 연구는 대기업은 시장기준 이전가격 전략을 사용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Yunker(1982)의 연구에 의하면 대기업은 시장 환경의 변동성과 전세계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기준 이전가격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Benvignati(1985)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는데 그의 연구에 의

하면 규모가 큰 기업은 그 규모로 인하여 항상 현지국 정부의 주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기준이전가격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모회사 규모요인에 대한 위와 같은 양설에 대하여 본 연구는 최근의 연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대기업의 시가기준이전가격결정방법 선택을 본 연구의 가설로 설정하였다.

〈가설 7〉 : 국제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시장기준이전가격을 사용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3.1 표본과 자료수집

본 연구 조사 대상 기업의 표본은 경기도 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해외에 현지자회사를 1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울러 현지법인 중 국제이전거래를 현재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업의 표본프레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인지방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한국기업의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해당기업의 관할 지역 국세청에서 국제이전거래 업체의 명단 보유가 가능한 이유는 국제이전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매년 회계 결산 신고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와 함께 국제이전거래 내역서를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고된 720개 해외 법인 중 매일경제신문에서 발간하는 기업연감을 참고로 하여 주소 확인이 가능한 282개 업체를 조사 모집단으로 하여 회신용 봉투를 첨부한 설문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1차 설문에 대해 28개 업체가 답하여 극히 응답

률이 낮았다. 이렇게 응답률이 저조한 이유는 모기업과 현지 자회사간의 거래가 없다는 업체가 조사 대상 기업에서 많았고 일부는 기업의 경영 정책상 밝힐 수 없다거나 조사하고자 하는 자료가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응답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응답 기업 수를 늘리기 위해 미응답한 업체의 재정부장을 대상으로 전화를 사용하여 설문서 작성을 간곡히 부탁하여 양해를 구하고 2차로 설문서를 재발송하여 최종적으로 71개 업체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최종응답율은 25% 이다. 이와 같이 이전가격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기업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이전거래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타연구에 비하여 저조하고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1997년 11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시행되었다.

###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에 해당되는 국제이전가격 결정 형태인 시가기준과 비시가기준의 구분은 시가기준으로는 재판매 가격법과 제3자 비교가능법, 시장 가격법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비시가기준 방법으로는 원가기준법, 협의가격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기업이 두 가지 기준을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더 많이 사용하는 회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국제이전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변수는 총 7개 변수로써 5개 변수는 5점 리커트 척도인 등간척도로 측정하고 나머지는 비율척도와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5점 리커트 척도에 해당되는 법률과 규제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3개 항목으로 나누어 현지 자회사국의 법률과 상관습, 반트러스트법과 반덤핑규정, 재무보고 규정과 요구에 반응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세

무적 요인은 한국과 현지 자회사국간의 법인세율 차이, 관세율과 관세법 규정 차이, 국제이전거래 관련 세법 규정에 대해 기업이 반응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정치·사회적 요인은 현지국의 정치적 안정성, 인권 침해 정도, 인종 정책과 종교적 갈등 정도로 정의하였다. 외부 경제적 요인은 현지국의 외환 및 가격 통제, 수량 규제, 인플레이션 정도로 측정하였으며 내부 경제적 요인은 현지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경쟁 위치, 경영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현지 자회사 소재국의 분류는 다수의 현지 자회사가 있을 경우 최근 년도에 국제이전 거래 규모가 가장 큰 현지 자회사 소재국을 기준으로 하여 현지국을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여 선진국은 미국, 일본, 서구유럽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국가 즉, 중국, 아시아, 중남미, 동구유럽, 아프리카 등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였다. 즉, 대표적인 현지 자회사 소재국을 명목척도인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하여 1개의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모기업의 규모는 연간 매출액을 이용한 비율척도를 사용하였다.

## IV. 자료의 분석 및 결과

### 4.1 실태 조사

조사대상기업의 실태 조사 항목은 현지 자회사 매출액을 포함한 모기업의 매출액 규모, 모기업과 현지자회사 간의 국제이전거래 규모, 설립 년도, 업종, 대표적인 현지 자회사 소재국에 대한 내용으로 <표 4-1>과 같다. 이 중 국제이전거래 규모에

있어 10억 미만이 12개 업체(16.9%), 10억-100억이 44개 업체(62%), 100억 이상이 15개 업체(21.1%)로 1개 업체당 평균 거래 규모가 106억이다. 국제이전가격 정책은 주로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표 4-2>와 같이 모기업의 지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21개 업체(29.6%), 현지자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4개 업체(5.6%), 모기업과 현지자회사간의 협의 후 결정하는 경우가 46개 업체(64.8%)로 나타나 국제이전가격결정에 시장에 기초한 가격기준보다는 주로 상호 협의에 의한 비시장 기준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의 국제이전가격 채택 방법은 시가기준 즉, 시장 가격법, 비교가능 제3자법, 재판 때 가격법에 해당되는 업체가 22개(31%), 비시가

기준으로 분류되는 원가기준 즉, 실제원가, 표준원가, 변동원가, 한계원가 또는 이에 일정율의 이익을 가산하는 업체가 27개(38%), 모기업과 현지자회사간의 협의에 의한 방법이 22개(31%)로 나타나 결국 시가기준이 31%, 비시가기준이 69%로 분류되었다.

현지 자회사 소재국을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각 국가별 국제이전가격 채택 방법의 빈도를 보게 되면 <표 4-3>과 같다. 현지 자회사가 선진국에 소재하는 기업은 시가기준과 비시가기준의 사용 비율이 21:79 이고 현지자회사가 개도국에 소재하는 기업의 시가와 비시가기준의 비율이 35:65로 나타나 오히려 선진국에 소재하는 기업이 개도국에 소재하는 기업 보다 비시가기준 이전가격방법을 더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실태조사 일반사항

항 목	구 분	업 체 수	비율(%)
매 출 액	100억 미만	12	16.9
	100-1000억	44	62.0
	1000억 이상	15	21.1
국제이전거래 금 액	10억 미만	15	25.0
	10-100억	33	55.0
	100억 이상	12	20.0
설 립 년 도	10년 미만	6	8.5
	10-20	29	40.8
	20년 이상	36	50.7
업 종	제조업	64	90.1
	도매업	7	9.9
현지 자회사 소 재 국	선진국	19	26.8
	(미국)	(17)	(23.9)
	(일본)	(2)	(2.9)
	개도국	52	73.2
	(중국)	(27)	(38.0)
	(아시아)	(19)	(26.8)
	(중남미)	(3)	(4.2)
	(기타)	(3)	(4.2)

〈표 4-2〉 국제이전가격 결정사항

항 목	구 분	업 체 수	비 율(%)
국제이전가격 정책결정방법	모기업의 지침에 의해 결정	21	29.6
	현지자회사에서 자율 결정	4	5.6
	모기업과 자회사가 협의하여 결정	46	64.8
국제이전가격 적용방법	시 가 기 준	22	31.0
	비 시 가 기 준	49	69.0
	(원가가격기준)	(27)	(38.0)
	(협의가격기준)	(22)	(31.0)

〈표 4-3〉 현지자회사 소재 국가별 구분에 의한 국제이전가격 결정 방법 빈도

구 분	선 진 국		후 진 국		합 계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시 장 기 준	4	21.1%	18	34.6%	22	31.0%
비 시 장 기 준 (원가가격기준) (협의가격기준)	15	78.9	34	65.4	49	69.0
	(6)	(31.6)	(21)	(40.4)	(27)	(38.0)
	(9)	(47.3)	(13)	(25.0)	(22)	(31.0)
합 계	19	100	52	100	71	100

#### 4.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국제이전가격 결정 방법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즉, 법률과 규제 요인, 세무적 요인, 정치·사회적 요인, 외부 경제적 요인, 내부 경제적 요인에 대한 변수의 신뢰도(reliability)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해 변수의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조사하였다. 〈표 4-4〉의 분석 결과에 의해 내적일관성을 저해하는 항목으로 제거된 항목은 법률과 규제 변수 중 현지 자회사국의 재무 보고 규정 및 요구 항목과, 기업 내부 경제적 변수 중 현지 자회사의 경영 실적 항목이었다. 이와 같

이 측정변수의 내적일관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제거한 후의 구해진 Cronbach's alpha 계수를 보게 되면 세무적 변수(.7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치·사회적 변수(.62) 외부경제 변수(.68) 내부경제 변수(.70)로 사회과학에서의 일반적인 수용 기준인 (.60)을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과 규제 변수는 alpha 계수가 (.51)로서 타변수에 비하여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국내에서 본 연구에 대한 기존 연구가 미미한 관계로 탐색적 연구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이러한 탐색적 연구의 수용 기준인 (.50)을 넘어서고 있어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다(Nunnally 1978).

다음에는 신뢰성 측정 항목에서 제외된 최종 채택

〈표 4-4〉 독립변수의 신뢰성 과 타당성 검증

변수(요인)	측정항목	요인적재치	커뮤널리티	아이젠값	신뢰성 계수
법률과 규제변수	법률 및 상관습	.7147	.6761	3.7160	.5124
	반트러스트법, 반덤핑	.4523	.5014		
	재무보고규정과 요구	----	----		
세무적 변수	법인세율 차이	.7899	.7650	2.7406	.7787
	관세율 및 규정차이	.6783	.5824		
	이전거래관련세법규정	.6737	.4786		
정치·사회적 변수	정치적 안정성	.6062	.6805	1.1824	.6229
	인권침해	.7074	.6736		
	인종정책및종교적갈등	.4649	.7410		
외부경제적 변수	외환통제또는가격통제	.6240	.8010	1.0890	.6800
	수량규제	.5235	.5446		
	인플레이션을	.6278	.6841		
내부경제적 변수	시장점유율	.5905	.6869	1.0061	.7004
	경쟁위치	.7587	.7987		
	경영실적	----	----		

주) ) ---- 은 신뢰성 검증시 제외된 항목임

항목 변수를 가지고 변수들의 일차원성(unidimensionality) 즉,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의 검증을 위해 요인 추출 방식으로 공통요인 분석(common factor analysis)방식을 택하고 아울러 회전방법으로 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4-4〉에서와 같이 국제이전가격 결정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규제 변수 외 4개 변수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요인의 고유값(eigen value)이 1.0을 모두다 넘고 있다. 또한 각 측정 항목의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는 일반적인 수용 기준인 0.5를 대부분 넘고 있어 위의 설명변수들을 가설검증에 사용함에 있어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3 분석 모형

한국기업이 현지 사회사와의 이전거래시 국제이전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 외부 요인들에 대한 가설검증을 위해 분석 모형으로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사용하였다. 프로빗 모형은 반응변수로 선정된 변수가 두 개 이상의 범주로 이루어진 빈도자료를 가질 때 쓰이는 조건부확률모형으로 로짓 분석(logit analysis),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등과 함께 가부반응분석(quantal response analysis)이라고 부른다(박광배 1992). 로짓분석이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의 예측되는 변수(predicted variable) 즉, 반응변수는 가능성 대비(odd ratio)를 로그화한 로짓(logit)이다. 이들 분석에서는 반응변수로 상대확률인 가능성대비를

바로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지 않고 그 가능성대비를 다시 로그화하여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확률지수는 0 보다는 크고 1 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한계를 극복하여 그들을 선형방정식의 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확률을 선형방정식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로그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반응변수의 지수가 프로빗(probit)이다. 프로빗 분석은 로짓 분석보다 다소 복잡하고 반응변수에 대한 누적적인 정규분포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프로빗(probit)과 로짓(logit)은 독립변수의 각 범주에서 조건확률을 비선형적으로 변환했다는 동일성을 갖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독립변수의 효과에 대하여 유사한 결론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로짓(logit)은 가능성대비(odd ratio)의 개념이고 프로빗은 임계저항력(tolerance)의 개념이란 해석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임계저항력의 누적 정규분포의 가정이 현실과 크게 괴리되지 않는다면 프로빗 분석은 독립변수에 대한 정규분포의 가정을 완화시켜 주면서 로짓분석에서 산출되지 않는 각 독립변수 값의 크기에 따른 종속변수의 이론적 확률을 도출시킬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참고로 로짓 분석(logit analysis)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의 내용은 별첨 부록에 연구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도입한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은 다음의 회귀계수식과 같이 요인 분석에 의해 확정된 5개요인 차원에 현지 자회사 소재국과 모기업의 규모 등 7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한국기업이 사용한 국제이전가격 결정 방법을 종속(반응)변수로 하여 다국적 기업의 환경요인들이 국제 이전 가격 결정 방법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TPM = \beta_0 + \beta_1 MF1 + \beta_2 MF2 + \beta_3 MF3 + \beta_4 MF4 + \beta_5 MF5 + \beta_6 MF6 + \beta_7 MF7$$

여기서 TPM= 국제이전가격결정 방법(Transfer Pricing Method)으로 만약 시가기준이면 "0", 비시가기준이면 "1"의 값을 가짐

MF1 = 법률 및 규제 요인

MF2 = 세무적 요인

MF3 = 정치·사회적 요인

MF4 = 외부 경제적 요인

MF5 = 내부 경제적 요인

MF6 = 현지 자회사 소재국, 만약 현지자회사 소재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1, 개도국으로 분류되면 0으로 분류하는 더미 변수(dummy variable) 사용

MF7 = 모기업의 규모

국제이전가격 결정의 반응(종속) 변수인 이전가격 결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시장가격에 기초하는 재판매 가격법과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은 시가기준 이전가격 결정 방법으로 분류하고 표준원가, 제조원가, 한계원가에 이윤 및 간접비를 포함하는 원가 가산법과 모기업과 현지 자회사간의 협의에 의한 협의가격법은 비시가기준 이전가격 결정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만약 기업이 이전거래시 시가기준 방법과 비시가 기준을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그 발생빈도가 더 높은 것을 이전가격 결정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즉 응답 기업이 시가기준 이전가격 결정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0"의 수치를 부여하고 비시가 기준 이전 가격 결정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1"의 수치를 부여하여 이분된 명목반응변수 (dichotomous dependent variable)를 가지도록 하였다.

#### 4.4 가설 검증

먼저 한국기업의 국제이전가격 결정을 가설 검증하기 전 이전 가격 결정의 예측력을 검증하였다. 한국기업의 국제이전가격 결정 예측력을 구분하는 판별 기준점은 probit 값(P)을 0.5 로 하였다. 이는 그 값이 0.5 보다 클 때에는 비시가기준 이전 가격 결정 방법으로 분류하고 0.5 보다 작을 때에는 시가기준 이전 가격 결정 방법으로 판별하였다. 그 결과 <표 4-5>와 같이 시가기준에 의한 이전 가격 결정 방법의 경우에는 예측 정확도 (predictive accuracy) 가 70.6 %이고 비시가기준에 의한 이전 가격 결정의 경우는 73.9% 로 전체적인 예측 정확도는 73.8% 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에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피어슨  $\chi^2$  값 (pearson's  $\chi^2$  value) 과 우도비  $\chi^2$  값 (likelihood ratio  $\chi^2$  value)을 가지고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는데 각각 57.4487 과 62.4075 로 자유도가 55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이는 한국기업의 국제이전 가격 결정을 예측하는 프로빗 모형이 자료를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chi^2$  값 대 자유도 비율이 거의 1에 가까우므로 (57.45/55 와 62.41/55) 거의 대부분이 모형에 의해 설명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probit 모형의 적합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probit model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설 검증을 한 결과는 <표 4-7> 과 같이 국제이전 가격 결정 방법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지는 변수는 법률 및 규제 변수, 외부 경제적 변수, 현지 자회사 소재국 변수이나 현지 자회사 소재국 변수는 회귀계수의 예측부호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서 가설 검증에서 기각되어, 결국 법률 및 규제 변수와 외부 경제적 변수가 최종적으로 가설 검증에서 채택되었다. 그 이외의 세무적 변수, 내부 경제적 변수, 정치 사회적 변수, 모기업의 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여 본 연구 가설은 기각되었으나 가설 검증에서 예측했던 계수 부호의 방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4-5> 프로빗 모형의 이전 가격 결정 예측 정확도

기업구분	정확히 예측된 기업수	잘못 예측된 기업수	총수기업수
시가기준 기업	12 (70.6%)	5 (29.4%)	17 (100%)
비시가기준 기업	34 (73.9%)	12 (26.1%)	46 (100%)
총계	46 (73.8%)	17 (26.2%)	63 (100%)

<표 4-6> 프로빗 모형의 적합도 분석

통계량 (statistic)	값 (value)	자유도 (d f)	p 값 ( p value)
피어슨 $\chi^2$ 값	57.4487	55	0.3846
우도비 $\chi^2$ 값	62.4075	55	0.2297

〈표 4-7〉 국제이전 가격 결정에 관한 Probit 모형 분석 가설 검증 결과

변수명	회귀계수	t 통계량	p- 값	예측부호 방향 (시가기준)	가설채택유무
절편	0.5830	0.2694	0.6037		
법률 및 규제 요인	0.2929	3.5983	0.0578*	+	채택
세무적 요인	-0.1048	0.9935	0.3189	-	기각
정치·사회적 요인	-0.0212	0.0363	0.8488	-	기각
외부 경제적 요인	-0.2111	3.8661	0.0493**	-	채택
내부 경제적 요인	0.0554	0.2260	0.6345	?	기각
개발도상국	0.9261	2.9872	0.0839*	-	기각
모기업의 규모	0.0001	1.3803	0.2400	+	기각

\* p&lt;0.1 \*\* p&lt;0.05

## V. 연구 결과 논의

앞의 가설 검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 4-7〉에서와 같이 법률 및 규제 변수는 가설 설정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정(+)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성(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기업 들은 현지국의 법규와 규제, 반덤핑 법규, 반트루스트법과 재무보고 규정 등과 같은 법적 규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전 가격이 조작성이 어려운 시가기준 이전 가격 결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하면 현지국의 법적 규제가 높을 수록 세무 조사 또는 반덤핑 제소 등의 규제들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비시가기준 이전 가격 결정 방법 보다 시가기준의 이전 가격 결정 방법을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Al-Eryani et al (1990)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세무적 변수는 계수 부호의 방향은 예상

한대로 부(-)의 방향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어 가설이 기각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국제기업들이 모국과 현지국의 법인세율 및 관세율 차이와 법인세법과 관세법 차이가 클 경우에는 세액 절감에 의한 기업 전체의 이익극대화 가능성이 높은 비시가기준 이전 가격 결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무적 요인이 이전 가격 결정 시 비시가기준 이전 가격 결정 방법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은 있으나 그 주장에는 통계적인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 투자 기업을 표본으로한 이정기 (1995)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정치·사회적 변수도 예측 한대로 부(-)의 값을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여 가설이 채택되지 못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Shulman (1967)의 정치·사회적 환경 요인이 이전 가격 결정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통계적인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는 Al-Eryani et al (1990) 과 이정기 (1995)

의 연구와 동일한 연구 결과로 정치·사회적 요인이 이전 가격 결정 방법에 중요 요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지국의 정치·사회적 환경이 불안정할 때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헤지(hedge) 하기 위해 비시가기준 이전 가격 결정 방법을 채택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넷째, 외부 경제적 변수는 예측 한대로 부(-)의 계수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성( $P<0.05$ )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지 자회사국의 기업 외부 경제적 변수 즉, 외환통제 및 가격통제, 외환 송금 규제, 수입에 대한 수량 규제가 엄격하고 인플레이션율이 높을수록 현지 자회사국의 실제 경영 이익을 유지해 주기 위해 이전 가격을 높이 책정하는 등의 비시가기준 이전 가격 결정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내부 경제적 변수의 모형 계수값은 정(+)의 방향으로 나왔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한국 기업의 현지 자회사의 공정한 경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이전거래시 시가기준 이전 가격 결정 방법을 사용한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반대로 현지 자회사의 현지국에서의 시장 점유율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주기 위해 비시가기준 이전 가격 방법을 사용한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여섯째, 개도국은 국제 기업의 이전 가격 조작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부과 하려고 한다. Brean(1979)의 주장에 의하면 이러한 규제는 이전 가격 세제에 대해 개도국이 무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더구나 개도국 제품 시장은 내부경제 여건상 이전 가격을 확립시킬 자체 시장지배력을 가질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기업들도 현지 자회사 소재국이 개도국일 경우 기업 내부 기준에 의한 비시장기준 이전 가격 전략

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지 자회사국이 개도국에 위치해 있을 때 비시가기준 이전 가격 결정 방법을 사용할 것이란 가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성( $P<0.1$ )은 있으나, 계수 부호의 방향이 예측과 달리 정(+)의 값을 가져 연구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오히려 선진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일 수록 개도국에 비하여 비시가기준 이전 가격을 사용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여 연구 가설과 반대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잘 설명해 주는 자료는 앞의 <표 4-3>에서와 같이 현지 자회사 소재국이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따라 각각 시장기준과 비시장기준 이전 가격 결정 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시가기준과 비시가기준의 사용 비율이 21.1% : 78.9% 였으나 개도국의 경우에는 앞의 비율이 34.6% : 65.4%로 오히려 선진국이 비시가 기준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지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경제 발달 수준이 높을 수록 시장기준 이전 가격 방법을 사용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모기업의 규모 변수도 예상 한대로 계수 부호의 방향은 정(+)의 값을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어서 본 가설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가 클 수록 시가기준 이전 가격 결정 방법을 사용하고 반대로 기업의 규모가 작을 수록 비시가기준 이전 가격 결정 방법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Arpan(1972-1973), Robbins and Stobaugh(1973), Al-Eryani et al(1990), 이정기(1995)의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Yunker(1982)도 대기업일 수록 국제시장 환경의 변동성과 범세계적 매출 때문에 시가기준 이전 가격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Benvignati(1985)도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눈에 잘 드러나기 때문에 시가기준 이전 가격 결정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들과 상이한 결과를 보인 것은 의외의 결과로 이러한 예측치 못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전체 표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아울러 시가기준과 비시가기준 이전 가격 결정 방법의 표본수의 비율이 31% : 69%로 상대적으로 시가기준 이전 가격 표본 비율이 적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 변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계속 요구된다.

## VI.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기업이 현지자회사와의 이전거래시 국제이전가격 결정요인을 발견하는데 있다. 지금까지의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 및 규제 요인과 외부 경제적 요인은 시가기준 이전 가격 결정 방법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지 자회사의 법률과 상관습에 의한 규제, 반덤핑 규정과 반트러스트법, 독과점 규제와 재무보고 규정의 강화 등의 법률 및 규제 변수가 시가기준 이전 가격 결정 방법을 사용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외부 경제적 변수에 해당되는 현지국의 수입규제, 외환 및 가격 통제, 수입 할당제 등의 경제적 규제가 높을 수록 국가간 자유로운 자금 이동을 금지하는 엄격한 경제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비시가기준 이전 가격 결정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그러나 세무적 요인, 정치·사회적 요인, 내부 경제적 요인, 현지 자회사 소재국, 모기업의 규모는 이전 가격 결정에 중요하지 않거나 영향을 미치지더라도 부수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제이전 가격 결정에 대한 일반적인 최적의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Arpan 1972, 1973).

셋째, 위의 5개의 기각된 변수 중 기업 내부경제 요인을 보게 되면 모기업이 현지 자회사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 시장 점유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낮은 이전 가격 결정이 가능한 비시가기준 이전 가격 결정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통계적으로 부(-)의 유의적인 상관 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기업이 현지 자회사의 업적 평가 정책에 이전 가격을 중요한 경영 정책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Yunker(198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다국적 기업은 경영 성과 평가와 시가기준 이전 가격 방법과는 정(+)의 유의적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즉 다국적 기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전 가격 결정 방법 이외에 그 나름대로의 업적 평가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거나 현재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경우 국제 이전 가격 전략을 수립할 때에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한 이전 가격 결정 요인은 실무적으로 유용한 전략적 시사점을 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서두에서 언급한 이전 가격 이론에도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 가격 결정의 이론적 접근법인 종전의 경제학적 모형(economic model)이 지지됨을 발견하였다. 즉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비시장기준 이전 가격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본 연구의 응답 기업들의 대부분이 비시장기준 이전 가격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전 가격 결정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의 하나인 인간 행동 모델(behavioral model)도 역시 지지됨을 발견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 기업 중 31%가 협의 이전 가격 결정 방법(negotiated transfer pricing method)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이전 가격을 결정하는데 시장 메카니즘이나 원가 구조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기업 전체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협의의 이전 가격을 채택하게 될 때 조직 부서 내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인간관계와 협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표본 수의 문제로 기존 연구와 같이 표본 기업 수가 적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국제 이전 가격에 대한 설문조사에 있어 표본 기업에의 접근이 어렵고 또한 자료 작성 요청시 응답 기업이 민감한 사안이고 기업 내부의 중요 경영 정책이라고 하여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이전가격전략의 일반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 설문 대상자를 기업의 재정부장 이상으로 선정하였으나 면담 결과 일부 대기업은 국제 이전 가격 정책 결정을 이사급 이상이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핵심 응답자(key respondent)를 적절하게 채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표본 선택 오차(sample selection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국제이전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내

외부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였으나 7개의 독립변수 중 5개가 외부환경 요인과 관련된 변수이고 내부 환경요인 변수 즉, 기업특성변수는 2개밖에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내부환경 요인에 관한 추가변수를 본 연구에 도입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연구 분석 대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행해졌다. 다시말하면 국제이전거래 품목이 완제품, 반제품, 원자재로 세분하여 분석하면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 본 연구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국제이전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환율변동, 자회사 지분율, 개발도상국에 진출 할 때 협상력 차이 등의 변수는 향후의 국제이전가격 결정에 있어 중요하게 검증되어야 할 변수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업종간 차이와 제품 유형간 차이에 따라 국제 이전 가격 결정 방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조사해 보는것도 좋은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기업들이 다른 외국 기업들에 비해 시장기준 이전 가격보다 비시장기준 이전 가격을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를 고찰해 보는 것도 향후 좋은 연구 방향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박광배(1992), *빈도분석*, 서울, 성원사.
- 이정기(1995), "다국적 기업의 이전 가격 결정에 따른 조세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대우(1986), "대체가격 결정의 분석적 체계화에 관한 연구," *경영논집*, 제2권 제2호, 충남대 경영경제 연구소.
- Abdel-khalik, A.R. and E.J.Lusk(1974), "Transfer

- pricing- A synthesis," *Accounting Review*, January, 8-23.
- Ackelsberg, R. and G. Yukl(1979), "Negotiated transfer pricing and conflict resolution in organization," *Decision Science*, July, 387-98.
- Al-Eryani, M.F., P. Alam, and S.H.Akhter(1990), "Transfer Pricing Determinants of U.S. Multinational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1, 3rd Quarter, 491-511.
- Arpan, J. S(1971), "*International Intracorporate Pricing, Non-American System and View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_\_\_\_\_ (1972-1973), "Multinational firm pricing in international markets", *Sloan Management Review*, Winter, 1-9.
- \_\_\_\_\_ (1979), "*International Intracorporate Pricing, Non-American System and Views*," Essential of Multinational Accounting,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 Benvenuti, A. M(1985),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by U. S. manufacturing firms," In A. M. Rugman and L. Eden, eds., *Multinationals and transfer pricing*, New York : St Martin's Press.
- Brean, D.J(1979), Multinational firms, transfer pricing, and tax policy of less developed countries, *Malayan Economic Review*, 24, October, 34-45.
- Business International Corporation (BIC),(1965), *Solving international pricing problems*, New York: BIC, Dun and Bradstreet. 1986, *The billion dollar directory: America's corporate families*, Parsippany, NJ: Dun and Bradstreet.
- Copithorne, L. (1972), "International Corporate Transfer Pricing and Government Policy,"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4
- Greene, J. and M.G.Duerr(1970), *Intercompany transactions in the multinational firm*, New York, NY: Conference Board.
- Hirshleifer, J(1956), "On the Economics of transfer Pricing," *The Journal of Business*, July, 172-84.
- Lecraw, D.J(1985), Some evidence on transfer pricing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A. M. Rugman and L. Eden, eds., *Multinationals and transfer pricing*, New York: St Martin's press.
- Nunnally, Jum C (1967),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Co.
- Plasschaert, S.R.F(1985), Transfer pricing problems in developing countries, In A. M. Rugman, and L. Eden, eds., *Multinationals and transfer pricing*, 247-66, New York: St Martin's Press.
- Robbins, S. M. and R. B. Stobaugh(1973), *Money in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 A Study of financial Policy*, New York, Basic books, Inc.
- Shulman, J(1967), "When the transfer price is wrong-by design,"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May-June, 69-76.
- \_\_\_\_\_ (1969), "Transfer pricing in multinational firms," *European Business*, January, 46-54.
- Tang, R.Y.W(1979), *Transfer pricing practic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Watson, D.J.H and J.V.Baumler(1975), Transfer pricing: A behavioral context, *Accounting Review*, July, 466-74.
- Yunker, P.J(1982), *Transfer pric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 A survey study*, New York, Praeger Publishers.

**부록 : (1)국제이전 가격 결정에 관한 Logit Model 분석 결과**

변수명	회귀계수	표준오차	$x^2$	p-값
절편	0.9872	1.9832	0.25	0.6186
법률 및 규제요인	0.4782	0.2610	3.36	0.0669
세무적 요인	-0.1812	0.1818	0.99	0.3191
정치·사회적 요인	-0.0218	0.1930	0.01	0.9101
외부 경제적 요인	-0.3534	0.1846	3.66	0.0556
내부 경제적 요인	0.1025	0.2005	0.26	0.6094
개발도상국	1.5450	0.9122	2.87	0.0903
모기업의 규모	0.00014	0.000129	1.19	0.2746

**(2) 국제이전 가격 결정에 관한 Logistic Regression 분석 결과**

변수명	회귀계수	표준오차	$x^2$	p-값
법률 및 규제요인	0.4698	0.2600	3.2664	0.0707
세무적 요인	-0.2050	0.1757	1.3608	0.2434
정치·사회적 요인	-0.0546	0.1795	0.0924	0.7611
외부 경제적 요인	-0.3735	0.1807	4.2698	0.0388
내부 경제적 요인	0.0685	0.1886	0.1320	0.7164
개발도상국	1.5452	0.9023	2.9327	0.0868
모기업의 규모	0.00013	0.000128	1.1058	0.2930

#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of Korean Firms

Yong Gyu Kim\*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and firm-specific variables on the selection of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strategies. The primary data were obtained from 71 Korean firms by means of a questionnaire.

Responses were analyzed by performing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ing a probit model. The findings suggest that legal constraints and external economics factors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in the selection of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strategies by Korean firms.

---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Distribution, Anyang University